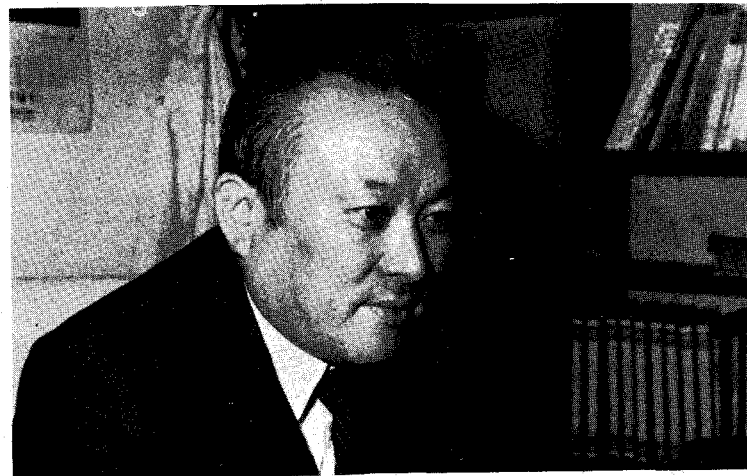


對談

吳世正 회장과 함께



일을 하는協會、단합하는業界

— 80年代의 협회 업계미래상을 듣는다

1977년 대한양계협회 회장직에 당선하여 “인화” “유신” “약진”을 목표로 협회를 맡은 후 1978년 12월 정기총회에서 다시 연임되어 지금까지 3년간 협회직장을 맡아온 본회 오세정 회장이 금년 9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학장의 중책을 맡게되므로서 금년 총회에서 협회장직을 사퇴할 뜻을 밝혔다.

양계업계와 대한양계협회로서도 가장 격동기였던 3년간 갖은 우여곡절로서 협회를 이끌어오며 양계업계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서 부각되어 양계업계를 위해 그 뜻을 다한 오세정 회장을 찾아 80년대의 협회, 80년대의 양계업계에 대한 비전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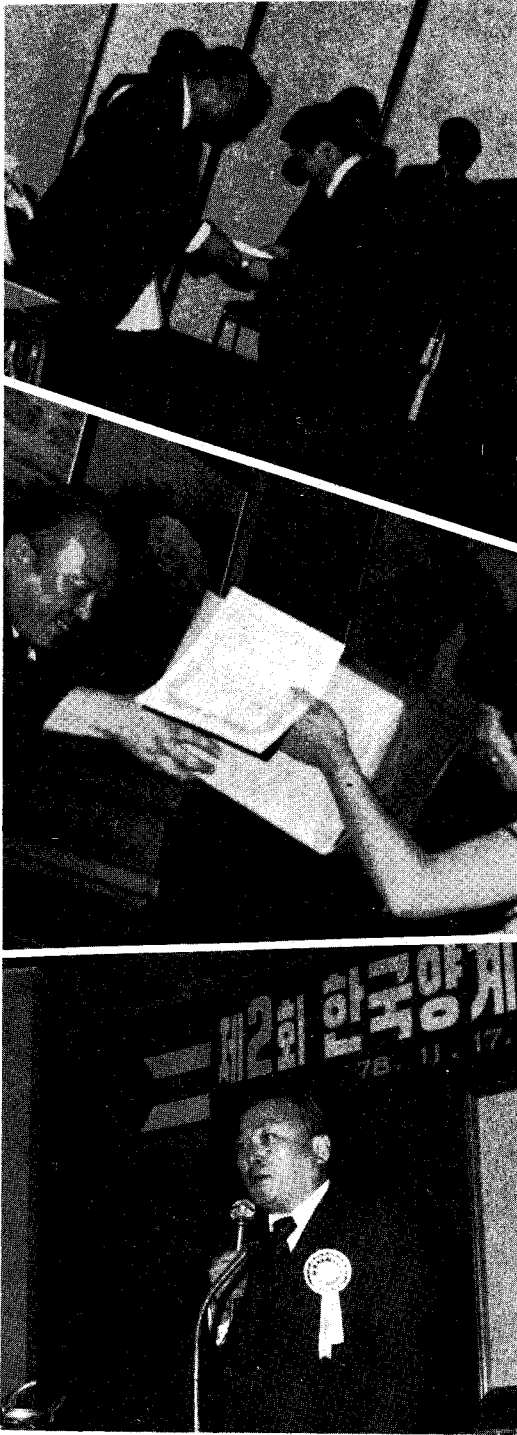
Q. 회장님께서 협회를 맡으신후 지금까지 3년간은 양계업계로 보면 호황의 극에서 불황의 극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라면 무엇을 대개 들 수 있겠습니까?

A.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협회사업의 확대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모두 드러내게 했다고나 할까요? 존재하는 협회가 아닌 일을 하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늘 본인의 주장입니다. 전 양계업자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그 가슴이 되어 가장 예민하게 그 고통을 느끼고 불편한 점이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알아 처리하는 곳이 협회입니다. 그래서 쉬지않는 협회로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까요? 그리고는 양계업자들에게 직접적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로서 외국계 도입재개, 협회 검정사업의 강화, 육계비축사업추진 등을 들 수 있으며 양계인으로 하여금 정보와 기술의 첨단을 견도록 하기 위해 각종 심포지움개최, 협회소식발간, 월간양계의 내용충실과 필요한 서적발간, 각종 연구조사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Q. 회장님께서 이루시지 못하셨거나 앞으로 80년대의 협회는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하는 비전같은 것을 제시하신다면?

A. 첫째는 협회기능의 강화입니다.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을 가지는 협회로서 양계에 관한 모든 사업을 협회가 주도하고 수행하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협회에서는 정확한 생산 및 사육통계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한 수급조절기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 협회조직인 지





부와 분회의 조직도 강화시켜 전업계가 협회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P·S 검정에 따른 지속적인 검정소 시설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셋째로는 협회의 주된 업무가 양축가의 권익 옹호에 있느니 만큼 각종 사양시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일반양축가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사료 및 약품의 세부적인 사양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양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데 그 큰 뜻이 있는 만큼 모두가 이해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Q. 그 외에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협회가 주도하여 이루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 보는데 주로 어떤 일들인지요.

A. 우리나라 양계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계안정관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양계진흥기금이 조성되고 등록제 및 쿼터제의 실시로서 물량의 수급 조절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둘째로는 서울의 인하조정과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외국으로부터 양계기구 및 기계도입시의 세율을 대폭 인하시키거나 면세품목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시설 허가절차 간소화 및 설계비를 인하해줄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 시행해야 하겠읍니다.

또한 업계의 중의로 보아도 사료 효율의 향상을 위해 사료가격을 현실화시켜 품질을 자유화하도록 풀어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협회를 중심으로 민간방역기구가 결성되어 명실상부한 집단방역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협회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업계 전체가 중의를 만들어야 하며 행정적으로 양계산업이 좀 더 중시되어 양계를 전담하는 행정기구 확장과 연구소 등이 증대 되어야 합니다.

Q.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범위를 넓혀 80년대 양계업계가 이루어야 할 일들은 대체로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A. 세상을 오래 살아나가다 보면 전엔 꿈만 같던 일이 시간이 흐른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요원한 일도 하던 된다는 신념을 가지면 모두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 양계인이 모두 건전하고 안정된 생업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80년대의 양계업은 우선 고품질적인 유통구조가 혁신되어 체계있는 유통 경로가 재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산될 계란과 계육을 적절이윤을 남겨 적정가격으로 소비자 에게

전달시켜 유통비용을 생산자와 소비 자가 나누어가질 수 있게 하는 체제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여러가지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육계생산의 계열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도계채통체제의 조속한 실현,

셋째, 체란중심의 양계조합이 보다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계산물의 계속적인 소비촉진사업을 이루어야 할텐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스컴을 통한 홍보 등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생산자 모두가 저렴한 가격으로 위생적이고 상품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란과 계육의 가공품을 개발하여 대량소비를 유도하고 닭고기 및 계란요리만을 판매하는 전문 닭고기 센터를 시내 여러 곳에 만들어 일반 대중에게 닭고기자 기호도를 높여야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에게 「닭」의 이미지를 더욱 강렬하게 심게하기 위해 외국과 같이 닭의 날을 제정하여 요리전시회등 각



중 행사를 벌이는 것도 꼭 시행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양계인 스스로가 양계기술을 더욱 연구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설을 기계화하여 성력화를 이루며 양계산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전문을 넓히고 각종 심포지움, 기술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참여하여 끊임없는 기술과 경영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계란의 중량판매제도, 양계인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개최, 권익보호를 위한 재단설립, SPF 종란에 의한 예방약생산공급이 all in, all out 사육방식의 완전한 실현 등 80년대 업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Q.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 대체로 회장님께서 스스로 하시고자 최선을 다 하시던 일들이니 꼭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얘기들입니다. 업계의 모든 양계인들에게 평소 부탁하고 싶으셨던 일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A. 우선 모두가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 하여 큰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리 보다는 대아와 공익을 앞세우는 정신으로 업계에서 얻어진 이윤을 다시 업계로 환원 하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만하지 말고 같이 협력단결해 주기를 재삼 부탁 드립니다.

본인이 협회장직은 떠나고자 함은 누차 말씀드린대로 대학의 보직과 건강때문입니다. 언젠가 다시 여건이 허락된다면 다시 양계협회 회장직을 맡아 못이룬 일들 다시 해보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가금협회 설립당시 부터 몸 담아온 협회, 직책만 떠날뿐 애 심은 늘 변하지 않을것이고 늘 힘닿는데까지의 후원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계인의 필수품 !

모든 양계관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책상위에서 물품구입의 지침서로서 전화번호부로서의 역할을 다할 양계인들을 위한 종합 정보誌

養鷄情報

발간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서울시 중구 양동 44-28
대한양계협회 (대체구좌 519272번) 으
로 권당 5000원을 보내 주시면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